

# 삼성전자, 美 버라이즌과 7조9000억원 '역대 최대' 계약

한미일 등 주요시장 5G 상용화 석권...코로나19 상황서 국가경제 기여  
통신 본고장 美 시장 진출 20여년 만에 핵심 통신장비 공급자로 우뚝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매출 기준 세계 1위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과 7조 9000억원(66억4000만달러)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장기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인했다.

이번 계약은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버라이즌에 5G 이동통신 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5년간 공급하게 된다. 이번 수주는 코로나19로 생긴 수출 공백을 메우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많은 중소 협력사들의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미일 등 주요 시장 5G 상용화 석권

삼성전자는 5G 선진시장인 한국, 미국, 일본에서 주요 통신사와 5G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SKT/KT/LGU와 세계 최초 5G 상용 개통(2018년 12월), 미국에서는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에 5G 공급계약 체결 후 버라이즌 '5G 홈(5G FWA, Fixed Wireless Access)

서비스 상용화(2018년 10월), 일본에서는 KDDI와 5G 상용서비스(2020년 3월)를 개시했다.

최근에는 캐나다 비디오톤(Videotron)(2019년 12월), 텔러스(TELUS)(2020년 6월), 미국 US셀룰러(2020년 2월), 뉴질랜드 스파크(Spark)(2020년 3월) 등 글로벌 통신사들로부터 신규 네트워크 장비 수주를 속속 성공시키고 있다.

### ◇세계 최대 이동시장 미국에 5G 본격 진출

미국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약 2500억달러 규모)이며 세계 기지국 투자의 20~2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시장조사기관 OMDIA의 지난 6월 기준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는 버라이즌 1.83억명, AT&T 1.71억명, 티모바일 1.37억명으로 버라이즌은 이번 미국의 1위 통신 사업자이다.

이번 수주로 삼성전자는 140년 역사(1876년 세계 최초 전화기 발명 기준)를 가진 통신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시장 진출 20여년 만에 핵심 통신장비 공급자로 발돋움하게 됐다.

### ◇기술·보안 신뢰도 인정받아...글로벌 시장 추가 수주 기대

### 로블 시장 추가 수주 기대

이번 계약은 미국 최대 통신사업자의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기술과 보안 모든 측면에서 신뢰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공급/제조/개발 전 분야에서 신뢰성을 확보해 공급망과 보안 모든 측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5G 기술 선도 중이다.

이번 기술적 성과와 신뢰성이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

### ◇대규모 수주로 국가 경제 기여...중소 협력업체 낙수효과 기대

코로나19로 인한 '뉴 노멀' 시대가 오면서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동영상 시청 증가 등으로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네트워크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네트워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공백을 메우는 수출 효과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국내 중소 장비부품회사 86개사와 협력해 네트워크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5G 장비는 국내 부품 비중이 40~60% 수준에 달할 정도로 국산화 비중이 높아, 삼성전자의 수주가 확대될수록 국내 중소기업들의 매출 확대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에 5G 장비를 대규모 공급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오랜 파트너인 버라이즌과 차세대 네트워크 진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략적인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삼성은 버라이즌의 고객들에게 향상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5G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초고주파(mmWave)·저주파(sub-6)·가상화 RAN 솔루션 기술 분야를 개척해왔으며, 칩셋부터 단말, 네트워크장비까지 토털 5G 솔루션(End-to-End)을 제공하는 5G 선도업체"라며 "삼성 5G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확대하는데 혁신적인 네트워크 기술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5G 기술력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 삼성전자, 미국 통신사업 연혁



- 1999년 — Sprint 2G CDMA 수출 및 상용
- 2001년 — Sprint 3G CDMA 상용
- 2007년 — Sprint Mobile WiMAX 상용
- 2009년 — Verizon 3G CDMA Smallcell 상용
- 2011년 — Sprint 4G LTE 상용
- 2014년 — Verizon 4G LTE Smallcell 상용
- 2018년 — Sprint 5G 모바일 사업 밴드 선정
- Verizon 4G/5G 모바일 밴드 선정
- AT&T 4G/5G 모바일 밴드 선정
- 2019년 — Verizon/AT&T/Sprint 5G 모바일 서비스 상용

자료: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매출 기준 세계 1위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과 7조9000억원(66억4000만달러)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은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미국 통신사업 연혁.

도 5G 서비스 확대는 5G 기반의 원격 의료, 교육 등 관련 콘텐츠 융합 서비스 등을 통해 계층·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신산업 설비투

자/생산/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미희기자

##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사이버 주택전시관 오픈

뉴타운급 랜드마크 대단지로 분양시장 '들쭉'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과 두산건설이 5일 광주 북구 임동에서 '금남로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를 사이버 주택전시관(www.gi-jnd.com)으로 선보였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76번지 일대에 위치한 '금남로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는 광주광역시 임동(유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거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대 39층 14개동, 아파트 전용 59~107㎡ 2,240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27~57㎡ 250실 등 총 2,490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금남로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거듭나는 광주 임동에서 중흥건설과 두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리미엄 브랜드다운을 조성할 예정으로 광주지역에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금남로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는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양동시장역 역세권 단지이며, 인근에는 광주역도 있다. 여기에 광주역 복합개발사업까지 예고돼 직접 수혜지로서 높은 미래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초·중·고교 다양한 학군들이 도보 거리에 자리하며, 단지 바로 옆에 광주천이 흘러 자연친

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 ◆ 교통, 교육, 생활, 미래까지 완벽한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 '분양돌보기'

먼저, '금남로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쾌속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 특히 광주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금남로역과 문화전당역 등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남광주역을 통하면 2024년 개통 예정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으로 환승도 가능하다. 또한 단지 앞에서 모이는 버스노선을 통해 광주 도심 곳곳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인근 금남로, 상무대로, 서광주IC 등의 진입이 용이해 사통팔달 광역교통망도 갖췄다.

단지 주변에 추진되는 대형개발 단지도 눈길을 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인 '광주역복합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광주역 복합개발 사업은 약 1조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2025년까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역 일대를 주거와 상업이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남로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는 개발사업의 수혜를 누리는 단지로 기대감이 높다.

'금남로 중흥S-클래스 & 두산위

브더제니스'의 안심 교육환경도 주목된다. 단지는 도보권에 수창초·서림초·북성중 등 다양한 학군이 위치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밖에 광주제일고·광주고·전남대 등 명문학교들도 근거리에서 위치해 있고, 금남로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운 만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돋보인다. NC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쇼핑시설들과 가까운 것은 물론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이 인접해 있어 편리하게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천주의 성요한병원과 종합병원인 해피뷰병원도 도보거리 내에 있어 탄탄한 의료인프라도 갖췄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관심사다. '금남로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는 단지 바로 옆으로 광주천이 흐르고 있어 수려한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고, 사계절 정원과 생태학습관 등 시민들을 위한 힐링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광주천 수변공원의 쾌적함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가야 챔피언스필드 야구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예술의 거리 등도 가까이 여유로운 힐링이프라를 즐길 수 있다.

'금남로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중흥건설과 두산건설의 우수한 시공력과 노하우가 담긴 특화설계도 도입했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했고, 중소형 평형부터 대형평형까지 선호도 높은 다양한 평형구성으로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지 곳곳에는 입주민을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공간도 조성된다.

8월, 아파트와 같이 공급되는 '금남로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오피스텔에서 볼 수 없었던 대단지 단지 조성 및 커뮤니티공간, 실당 1.5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공간, 27㎡, 57㎡의 다양한 평면타입 제공 등으로 투자와 실거주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월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접수이며 9월22일 당첨자발표 그리고 10월5일부터 10월11일까지 7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이다. **서선욱기자**

## 도공,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강화

메뉴도 간편식 위주로 개편하도록 권고 방침

한국도로공사가 추석명절 대이동에 대비해 휴게소 방역강화에 나섰다.

7일 도로공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8월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25개 휴게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비

치하고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5시) 매장 운영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수도권 휴게소의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 의무 대상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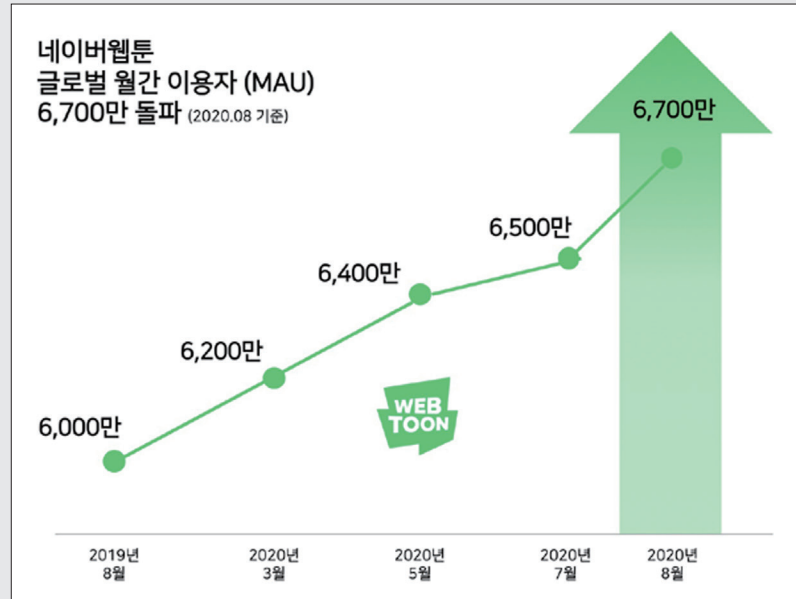
현재 전국 휴게소에서는 고객 간 거리두기를 위한 안내방송과 식당 테이블 가림판 설치, 한 줄 앉기를 실시하

고 있다. 또한 간격유지 바닥표시를 해 거리를 유도하고 있다. 향후 고객 밀집 시간대에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 거리유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메뉴를 간편식 위주로 개편하도록 권고해 고객 체류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휴게소별로 거리두기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고객 출입 관리 및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이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 네이버웹툰, 8월 실사용자 6700만·거래액 800억 돌파

"크로스 보더' 플랫폼으로 작동하기 시작...연 거래액 1조 달성 자선"



네이버웹툰이 지난 8월 글로벌 월간순사용자(MAU)가 6700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6500만명을 돌파한 이후 한 달 만에 200만명이 증가했다. 네이버웹툰은 올해 목표였던 월간 MAU 7000만명을 더 빠르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사용자가 늘어나며 유료 거래액도 급증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8월 2일 업계 최초로 일거래액 30억원을 돌파한 것에 이어 8월 한 달 거래액이 8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5월 700억원을 돌파한 지 3개월만에 1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웹툰은 올해 목표 거래액 8000억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거래액 1조원 달성 시점 또한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네이버웹툰은 2014년 영어와 대만어로 글로벌 웹툰 서비스를 출시했고, 2013년부터 라인망가를 통해 웹툰을 일본 시장에 알리는 등 글로벌 시장에 웹툰이라는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 왔다.

네이버웹툰 김신배 사업리더는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 웹툰 지면을 확대해 온 결과 네이버웹툰 플랫폼이 한 지역의 콘텐츠가 각 국가로 연결되는 '크로스 보더' 플랫폼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면서 "그 결과 글로벌 지역 사용자들의 증가 추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작품 '여신강림'은 미

국, 일본, 태국, 프랑스 등 글로벌 각국에서 인기 순위 상위에 올라있고, 최근 글로벌에서 연재를 시작한 한국 작품 '더 복서'도 미국, 태국 등에서 인기를 모으며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

영어 작품 '모어 올림푸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인기 순위 상위에 올랐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연재를 시작했다.

웹소설 원작의 웹툰들도 글로벌 지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재혼 황후'는 태국, 대만 등 지역에서 인기 순위 5위 안에 올랐다. '전지적독자시점'도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대만어에 이어 지난 8월 영어 서비스에서도 연재를 시작했다. 유료 결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노블레스'는 오는 10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전세계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신의 탑', 7월에는 '갓 오브 하이스쿨'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김준주 네이버웹툰 대표는 "한국 시장에서의 공고한 위상을 바탕으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남미, 유럽 등 전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창작 생태계 조성에 이어 웹툰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최이슬기자**